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1

2021

차 례

인민들속에서

인민들속에서!

이 말에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생사고락도 함께 나누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이 력력히 비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4 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지하혁명투쟁과 두차례의 혁명전쟁,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실수 있은 근본비결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대중의 힘을 남김없이 발동하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대중은 하늘이고 스승이였으며 세상에서 제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때문에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며 인민에게 의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신조였고 좌우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추억하는 회고록의 첫 페지에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을 만나실 때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지 않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여도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일관된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당과 국가를 건설하시여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 인민의 국가로 건설하실수 있었던것이다.

인민들속에서! 바로 여기에는 한없이 소박하고 청렴결백하며 뜨거운 동지애와 인정으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위인상이 함축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을 찾아가시여서는 어지러워진 그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으시고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나갈 방도도 의논하시였다.

그리고 농촌에 가시여서는 수수한 멍석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농민들의 생활형편과 농사일을 헤아려주시고 그들을 알곡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리는 속에 조선에는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락원이 솟아올랐고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과 혼연일체를 이루신 여기에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고 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으실수 있은 근본비결이 있다.

인민위천의 숭고한 뜻 어린 고귀한 부름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민헌신의 력사는 한평생 사랑과 정을 다해 불러주신 인민에 대한 값높은 부름속에 빛나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자신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조선인민을 가장 숭고하면서도 친근한 이름으로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인민대중을 사회력사의 주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밝혀주시여 그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여기에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 가장 재능있는 창조자로 내세우며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투철한 인민중시의 견해와 관점, 애민헌신의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에서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년대기마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조선인민을 영웅적인민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할 때에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백배, 천배로 강해지는것이 바로 인민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주시고 조선인민을 자주적근위병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인민의 진정어린 목소리를 들으시면 소박하고 순결한 인민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였으며 외국방문의 길에서는 두고온 인민들생각으로 마음끓이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는 인민대중이며 《위대한》이라는 호칭으로 부를수

있는 인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조선인민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떠받들려 당과 국가도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어머니당, 인민의 호주로 강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음악철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밑바탕에는 음악과 혁명, 음악과 정치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심오히 명시해주는 비범한 음악철학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음악철학은 한마디로 말하여 음악은 혁명의 무기, 정치의 위력한 무기이며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사상이다.

언제인가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능란한 솜씨로 피아노를 연주하시며 깊은 사색에 잠겨 노래를 부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을 뵈온적이 있었다.

고요한 새벽하늘의 정적을 깨치시며 노래를 다 부르신 그이께서는 경탄의 눈길로 우러르는 일군들에게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정서가 풍부하여야 군인들과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그에 맞게 정치사업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며 자신께서는 가끔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타면서 새로운 전법방안을 구상하기도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와 노래는 천만자루의 총검을 대신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주장이고 신조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사상리론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와 근본요인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맞다드는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새로운 발전의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를 열어놓았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는 과정에 정치사상적힘을 비상히 확대강화하였으며 자체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 자력갱생을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나갈수 있는 소중한 밑천을 마련하였으며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조선로동당은 국가의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국가핵무력대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를 련속 개발완성하도록 하여 국가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되게 하고 전쟁억제력, 전쟁수행능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인민군대를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조중친선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으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조미사이의 력학적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훌륭히 과시하였다.

총결기간 이룩된 이 모든 성과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며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위대한 일심단결에 원천을 두고있다.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나라의 내부적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당 제 8 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에는 현존하는 외부적인 도전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격파할수 있는 지름길이 밝혀져있다.

당 제 8 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에는 이와 함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내재하고있는 편향과 결함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부단히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요구가 반영되여있다.

조선로동당은 이번 대회에서 자기 사업을 비판적인 견지에서 랭정하게 분석총화하였다. 그것은 결코 성과가 작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여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가속화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의지의 분출인것이다.



조선로동당이 더 높이 들고나가는 3가지 리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 8 차대회에서 전당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민위천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정치철학이다.

일심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 단결이며 자력갱생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나가는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이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정치리념, 투쟁원칙이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우선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기간공업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경제활성화를 적극 추동해나가는것이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또한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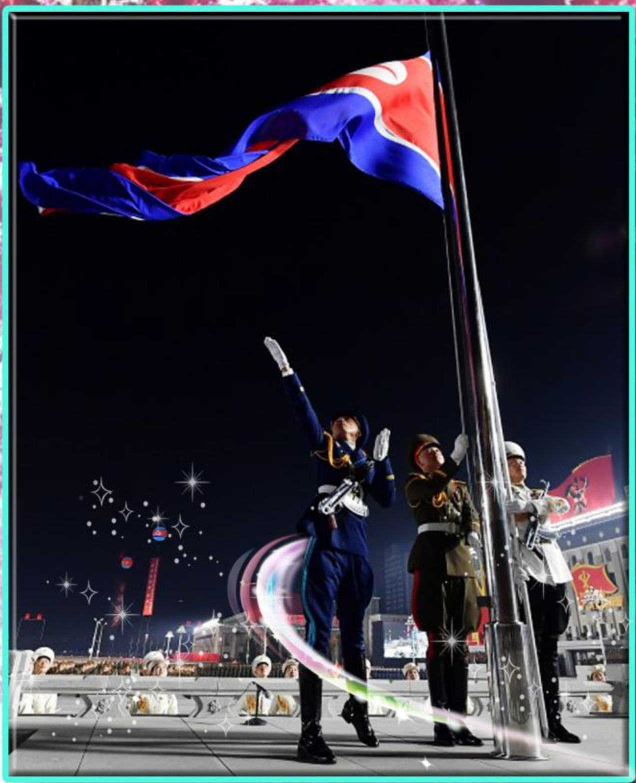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여 축포 발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사진 및 도서,미술전람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

대고조진군길에 활력을 더해주는 예술인경제선동활동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결정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예술인경제선동활동이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국립민족예술단, 국립교예단,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배우들이 평양화력발전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을 전개하여 대중을 새로운 혁신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지방의 예술단체들도 여러 공장들과 농촌들에 달려나가 혁신창조의 열풍이 일어번지게 하였다.









첫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조선인민

당 제 8 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이 첫달부터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에서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1 월 30 일 현재 모든 지표에 대한 생산계획을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에서도 과감한 증산투쟁을 벌려 1 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석탄공업, 철도운수, 기계공업, 채취공업, 림업, 건재공업,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계획을 수행하였다.

,












기술혁명











당의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미더운 청년들

당의 구상을 받들어 새로운 5 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첫해 진군길에 떨쳐나선 조선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새로운 5 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을 지펴가는 서부지구 탄전의 20 개 청년돌격대가 2021년 1.4 분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들이 위훈창조, 긍정창조, 문명창조의 기수, 미덕과 미풍의 선구자가 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남포시의 140 여명 청년들이 시안의 20 여개의 농장으로 진출하여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갈것을 결의해나섰다.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진하여 달려나가는 청년들의 대오가 계속 늘어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조선식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위한 대고조전구마다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아름답게 수놓으려는 조선청년들의 애국의 열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늘어나는 모범기술혁신단위들

전국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당 제 8 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2 월 2021년에 들어와 처음으로 되는 모범기술혁신단위들이 배출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쟁취한 단위들은 9 개의 3 중모범기술혁신단위와 34 개의 2 중모범기술혁신단위를 포함하여 모두 91 개 단위이다.

3 중, 2 중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와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쟁취한 단위들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술혁신목표부터 대담하고 현실성있게 세우고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과학기술을 자기 단위의 내적잠재력을 강화하고 단위발전을 위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기술혁신운동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게 하였다.



고고학분야에서 이룩된 성과

안악군 월지리에서 고구려벽화무덤 새로 발굴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에서 2 기의 고구려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하였다. 무덤에서는 정밀하게 가공된 금귀걸이와 꽃잎모양의 장식품을 비롯한 9 점의 금장식품들이 발견되였다.

첫번째 벽화무덤은 무덤안칸의 천정이 평행삼각고임천정으로서 그 형식이 전통적인 고구려시기의것이다. 4 개의 벽면과 천정에서는 사신도와 련꽃무늬, 구름무늬, 련꽃잎, 보리수, 거북잔등무늬 등과 함께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별그림도 발견되였다.

두번째 벽화무덤도 고구려시기의 돌칸흙무덤으로서 여기에는 해를 비롯한 많은 벽화쪼각들이 남아있다.

무덤벽화들에 반영된 환상적인 그림들과 금귀걸이를 비롯한 금장식품들은 당시 사람들의 천문학수준과 신앙관념, 발전된 금속세공술을 잘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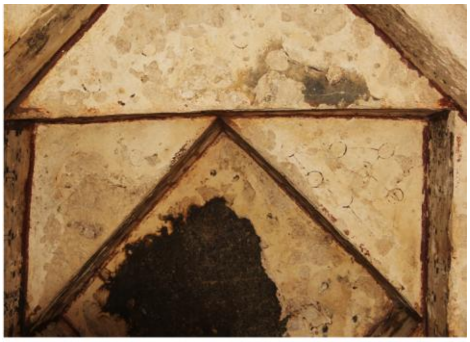
이번에 발굴된 벽화무덤들은 6 세기 전반기에 축조된것으로서 이 지방이 고구려의 중요한 행정적중심지의 하나였다는것을 새롭게 밝히며 천년강국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옳바른 리해를 주고 조선민족문화의 단일성과 공통성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할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로 된다.



현무



청룡



별자리



백호



주작



거북잔등무늬 2



련꽃우의 인물



무덤들에서 발굴된 금장식품들

평안남도 숙천군 신풍리에서 구석기시대의 몰이사냥터유적 새로 발굴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인류학연구실에서는 평안남도 숙천군 신풍리에서 구석기시대의 몰이사냥터유적을 새로 발굴하였다.

구릉성산지로 둘러막힌 논벌에 위치하고있는 유적은 몰이사냥터인 1 지점과 석기제작터인 2 지점으로 갈라지는데 두 지점은 약 80m 정도 떨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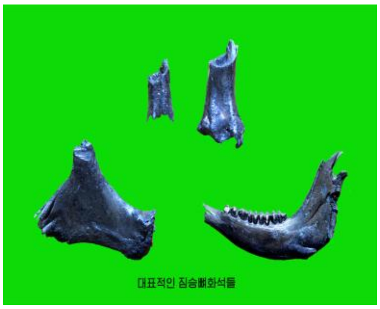
유적의 1 지점에서는 타제돌도끼, 긁개, 밀개를 비롯한 3 점의 석기와 뼈송곳을 비롯한 10 여점의 골기 그리고 인공적인 타격에 의하여 생긴 흔적들이 있는 짐승뼈화석들을 비롯한 1 380 여점의 화석들이 발굴되였으며 2 지점에서는 20 여점의 석기들과 천수백점에 달하는 석기반제품 및 돌쪼각들이 발굴되였다.

연구집단은 여러차례에 걸쳐 유물에 대한 감정과 분석, 전자상자성공명법에 의한 년대측정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이 유적이 우리 나라 벌방지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약 15 700 년전에 해당되는 구석기시대 후기의 몰이사냥터유적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신풍리유적이 발굴됨으로써 벌방지대에서 생활한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산활동과정을 밝힐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문화가 북방의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온것처럼 주장하는 력사외곡행위의 부당성을 까밝히고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문화가 바로 우리 강토의 구석기시대후기문화에 연원을 두고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론증할수 있게 되였다.



대표적인 골기들


대표적인 짐승뼈화석들



대표적인 석기들

탁월한 사상, 비범한 예지에 매혹되여

고급석재들이 평양으로 실려오기까지

여기에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한 주체사상신봉자의 심장의 웨침이 있다.

《이 돌은 주체의 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야 한다. 만일 돌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다면 그것은 우리 심장에 금이 가는것과 같다.》

뻬루 **김일성**동지로작연구쎈터 위원장이 터친 이 진심의 고백은 진보적인류의 마음과 지성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안데스산줄기에 묻혀있던 희귀한 대리석을 마련하여 기증한 뻬루의 주체사상신봉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주체사상탑의 기단내부벽을 장식하고있는 고급석재들에 깃들어있는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주고있다.

평양에 주체사상탑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들은 뻬루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모여앉아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였다. 토의끝에 그들은 수세기전 자기 지역의 원주민들이 건물과 기념품을 장식할 때 썼다는 뻬루에만 있는 특수한 무늬의 희귀한 대리석을 찾아내여 주체사상탑건립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대리석산지를 찾기 위하여 연구기관들의 력사자료들을 일일이 탐독하는 과정에 어느 한 력사기록에서 마침내 그 대리석이 안데스산줄기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하지만 기쁨은 순간이였다. 수도인 리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데스산줄기의 한곳에 있는 대리석산지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없는 해발 4 000~5 000m 되는 곳으로서 매우 가파롭고 위험한 곳이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그 길에 서슴없이 나섰으며 온갖 고생끝에 목적지에 당도하였다.

보다 힘겨운 전투는 수백kg짜리 돌을 도로까지 운반하는것이였다. 자칫 잘못하면 깊은 계곡에 빠뜨려 돌을 영원히 잃어버릴수도 있었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운반도중 돌이 균형을 잃었을 때에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없이 자기 몸을 돌밑에 던진 주체사상신봉자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서두를 때 그가 한 말은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돌을 먼저 구원하라, 이 돌은 우리모두의 충성의 마음이다.》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따르는데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굳센 신념과 의지, 고결한 사상감정이 이러한 희생정신을 낳게 하였다. 그는 상한 팔과 어깨로 굳세게 돌을 버티면서 동료들과 끝까지 위험지대를 극복하였다.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인류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주체사상을 끝까지 따르려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각오와 의지는 이렇듯 열렬하고 진실하였다. 바로 이러한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고급석재들이 평양으로 실려왔던것이다.



《태양은 동쪽에서 솟는다!》

1980년대 중엽 조선대표단이 부르끼나 파쏘를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다.

조선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부르끼나 파쏘의 저명한 문인이며 사회활동가였던 딸 쎄꾸는 자기는 주체사상에 공감하면서 그 창시자께 매혹되였고 또 창시자의 위업을 계승하시는 위인을 존경하게 되였다고. <태양은 동쪽에서 솟는다!>, 이것은 자기가 인생체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이라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매혹되였기에 그는 자기 한생의 총화작이라고 할수 있는 도서 《조선, 수령과 그 위업의 계승》을 훌륭히 서술하여 내놓을수 있었다.

그가 이 책을 내놓기까지는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딸 쎄꾸가 그처럼 오랜기간 도서를 집필하게 된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딸 쎄꾸가 2살 잡히던 해에 아버지는 그에게 《하루를 살아도 빛이 나는 일을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10살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들은 그는 그후 문단에 발을 들여놓았고 문필활동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공허감으로 차있었고 날이 갈수록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빛이 날수 있는것인가에 대한 의문만이 더욱 갈마들었다.

그러던 딸 쎄꾸가 인생전환기의 새 출발을 하게 된것은 주체사상을 접한 때부터였다.

그가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나이제리아에서였다.

그는 체류기일까지 연장하면서 밤을 지새워가며 주체사상에 대한 많은 책을 탐독하였다. 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인간중심의 사상을 받아안게 된 그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는 길은 바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시는 절세위인들의 업적과 령도, 고매한 덕성을 세상에 전하는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였으며 10여년을 《조선, 수령과 그 위업의 계승》이라는 도서집필에 고스란히 바쳤다.

마음의 기둥

주체사상신봉자들속에는 탄자니아의 평범하고 소박한 녀성인 마가레트도 있었다. 그는 이름난 학자도, 사회계의 인사도 아니였다.

한때 그는 자신이 당한 불행을 기구한 운명의 탓으로 여겼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하느님》에게 의거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인생관이였다.

이러했던 그가 어떻게 되여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여 위대한 인간학설을 보급하는 길에 나서게 되였는가.

1983 년 여름 어느날 마가레트의 가정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다. 남편이 급병에 걸려 운신조차 할수 없게 되였던것이다. 마가레트는 매일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느님》에게 빌었지만 남편은 끝내 숨지고야 말았다. 그는 정신적번민속에 방황하였다.

그후 마가레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접하게 되였다. 로작을 탐독하면 할수록 그는 진정할수가 없었다. 로작에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 담겨져있었다.

이것은 자신이 당한 불행을 기구한 운명의 탓으로 여기던 자신의 생활관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전혀 새로운것이였다.

로작에 담겨진 진리는 오랜 세월 허망한 정신적기둥에 의지하여 살아온 마가레트에게 투쟁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었다.

《주체사상이야말로 내가 믿을수 있는 마음의 기둥이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내 힘으로 나의 생활을 개척해나가자.》

주체사상에서 참된 인생의 진로를 비로소 찾게 된 마가레트는 그후 자신부터 주체사상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는 한편 사람들속에 주체의 진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헌신하였다.

좌 담

수십일사이에 극에서 극으로

태풍과 폭우에 의하여 집과 가산을 모두 잃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을 우리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 가장 불행하였던 수만의 사람들이 불과 수십일사이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로 된 이야기가 지난해 2020년에 조선에서 태여났다. 우리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불과 수십일사이에 만복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를 세계인민들에게 전하고싶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사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되였다.



사회자: 2020년 조선에서는 례년에 없이 3차례의 태풍과 큰물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많은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김성국: 재난은 한순간이였습니다. 인민들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한순간이라도 락심하거나 생활상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될것이라고 하며 당에서 조치를 취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이 인차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은파군 대청리의 피해자들은 당과 정권기관청사에서 생활상편의를 보장받으며 생활하게 되였습니다.



신혜경: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는 새 학용품이, 로인들에게는 보약이 보장되였으며 지어 피해복구에 동원된 인민군부대의 군의들이 주민들의 치료를 맡아 진행하고 이발도 해주는 인민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펴났습니다.

인훈: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은정어린 조치들을 편이어 취해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가족세대들이 떨쳐나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필요한 가장집물을 지원하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농장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여 농장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사회자: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동원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곧 자연재해복구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리금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태풍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입은 뒤 그 후과를 가시기 위한 복구사업을 하는것은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선에서 진행된 3차례의 자연재해복구의 전과정은 특례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들이 닥친 엄청난 장마철폭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몰려드는 근심과 고충도 없지 않았지만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는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것이라고,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에 보답할것이라고 하시며 복구전투를 진두지휘하시였습니다.

현은옥: 인민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그이의 인민사랑의 높이, 리상의 높이는 농촌살림집 설계와 시공, 완공을 놓고도 잘 알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재해가 가셔지지 않은 현지에 몸소 나가시여 건설물자소요량, 물자절약측면을 고려함이 없이 농촌살림집들을 농장원들의 의견대로 1 동 1 세대로 설계하여 훌륭히 지어주도록 해주시였습니다. 또 다른 자연재해복구현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의 설계가 다양하지 못한데 대하여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다른 지역들에 일떠서는 살림집들의 설계는 보다 편리하게, 다양하게 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된 새 살림집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하시여 건설자들이 인민들의 요구를 중시하고 그들의 편의에 맞게, 손댈데 없이 건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김성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의지를 안고 혁명적당군이 피해지역들에 파견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건설전투를 벌리였는데 김화군의 인민들은 살림집이 밥짓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솟아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리철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복구건설과정만이 아닌 중요한 정치사업과정으로,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전환시키시는 탁월한 령도실력을 발휘하시였습니다.

사회자: 예. 그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주시기 위하여 혁명적당군인 조선인민군을 피해복구전역에 주력으로 내세워주시고 기적을 창조하도록 령도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민군군인들이 당의 기대와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였을 때에는 조선로동당의 숙원을 또 하나 풀어주었다고 인민군군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습니다.

인훈: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내세우시였을뿐아니라 친히 수도의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여 그들을 피해복구전역으로 불러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피해현장에서 친히 쓰신 서한에서 수도의 당원들이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수도 평양의 따뜻한 손길로 피해지역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하루빨리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피시는 그이의 뜨거운 열과 정을 안고 수도의 핵심당원들로 조직된 두개의 수도당원사단이 피해지역에 달려나가 투쟁과 혁신의 날과 날을 수놓았습니다.

신혜경: 그 나날은 그대로 전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며 이겨내는 사회주의국풍이 높이 발양되는 과정이였고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된 나날이였습니다.



현은옥: 이번에 재해지역 인민들은 어머니당이 자신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베푸는 한없이 친근한 사랑과 은정이 고맙고 자신들을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고와 심혈이 가슴울리여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크게 한 일도 없이 집에서 쉬면서 부양이나 받던 자기들에게 돈 한푼 받지 않고 품한자루 요구하지 않고 십여일 또는 수십일만에 집안가구와 부엌세간, 생활필수품을 다 갖춘 살림집을 건설하여 무상으로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덕이 고마워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리철봉: 어찌 그들만 눈물을 흘리였겠습니까? 온 나라 인민들이 같이 기뻐하고 고마움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함께 흘리였습니다. 지난해는 진정으로 고난과 시련도 많은 해였지만 우리들이 안겨사는 당의 품, 조국의 품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절감한 해였습니다.

리금희: 나라의 동남부로부터 북부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을 다 찾으시였습니다. 승용차가 미끄러져 내리는 진창길도 먼저 밟으시고 위험천만한 가설협곡철길도 지나시며 현지를 찾고찾으신 그이의 위민헌신이 있어 수많은 피해지역에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생겨나고 인민들이 재난에서 행복에로 극전환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사회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민의 힘을 무궁무진하게 해주시고 그들모두가 하나와 같이 고락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들의 생의 은인이시고 운명의 태양이십니다.

















생활용품







다리밑을 살피는 총각

인 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대표단을 태운 차는 날마다 참관일정에 따라 시내의 여러곳을 찾아 달리였다.

그 모든 참관지들에 갈 때면 차는 반드시 다리들을 지나게 된다. 평양의 풍치를 돋구며 도시의 중심부를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건너지른 큰다리들뿐만이 아니라 도시를 감돌아흐르는 보통강을 건너간 크고 작은 다리들은 또 얼마!

차가 어느 한 다리를 통과하여 굽인돌이를 도는 순간 창밖으로 머리를 불쑥 내미는 젊은이가 있었다.

다리밑이 보였다.

그 다리밑에 사람들이 사는 판자집이나 박막집이 있을수 있지 않을가. 브라질에서 보아온 그런 집들이 여기 평양에도 있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던지라 그는 눈알이 빠지도록 여겨보았다.

그 젊은이는 다리들을 지날 때마다 순간적으로 차창밖으로 목을 빼들고 다리밑을 줄곧 살피군 하였다.

(왜 그럴가?)

그의 이상스러운 행동은 자연히 대표단일행과 함께 움직이는 통역원처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 젊은 총각은 대표단의 한 성원인 브라질 리오 데 쟈네이로련방종합대학 어문학부 학생 루까스 루비오 메스끼따 다 씰바였다. 그는 조선방문이 처음이였다.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국을 앞둔 날 저녁 그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난 평양의 다리밑에 거지들이 산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사는가 하여 차가 다리우를 지날 때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밑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우리 브라질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리밑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질까지 하는 때가 있어요. 난 조선에서도 그런가 하였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역원처녀의 머리속에 그가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을 돌아보며 너무도 부러워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들은 자기 제도의 고마움을 정말 다는 모를겁니다. 그달 집세를 물기 위해 항상 앉으나 서나 그 집세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것이 얼마나 고달픈 스트레스인가를 체험해보지 못하였으니까요.

일생을 벌며 일해도 자기의 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 한채를 자기의것으로 가지고 산다는것은 참으로 대단한 행복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부유함을 뽐내는 미국에서도 집세를 물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거리에 천막을 치고 사는것을 나는 실지로 보았습니다.》



입빠른 사람

렴정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기 위하여 5.1경기장으로 가는 뻐스안에서 홍콩 오락참관단 단원 정복상은 무심중 자기 자랑을 하게 되였다.

《난 1996년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진행된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여 집단체조를 보았소. 아주 멋있었어.》

안내원처녀는 조금도 다른 티를 내지 않고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본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어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번씩이나 하고 떠나갔답니다.

선생님도 아마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할것 같은데…》

《안내원아가씨는 나의 진정한 인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난 꼭 정선생님의 인사를 받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뻐스안의 승객들은 두사람의 말싱갱이질을 들으며 이제 두고보자며 모두가 웃었다.

정말 그 수준이 어떠한것이기에 세상에 소문났을가.

5.1경기장에 도착하니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기장주차장과 그 주변이 온통 인파였다.

국내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국외에서 자기들처럼 관광온 사람들이 뻐스에서 내리는 모습도 여기저기 보여왔다.

참관단성원들은 자기들이 지금껏 보아온 대공연들을 그려보며 정해진 호구로 들어가 관람석의 자기 자리에 앉았다.

《야!-》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드디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시작되였다. 아니, 정복상은 눈을 비비며 다시 배경대를 쳐다보았다. 시작되지 않았다. 관람객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는 사이 공연을 앞두고 배경대에서 련습을 하는 장면이 시작되였던것이다.

그런데도 시작인줄 알았다. 련습장면이 얼마나 황홀한지 시작처럼 보였다.

《야!-》

옆에 앉은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성을 지르다니?!

콤퓨터로 조작하는것처럼 너무도 정교한 배경대의 일치한 움직임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것이다.

정복상은 공연전기간 입에 자물쇠를 채웠다. 온 객석이 떠나갈듯이 야! 야! 할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망원경을 가지고 매 장면이 바뀌는 순간의 춤대렬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눈이 빠지도록 보기도 하고 배경대의 화폭이 콤퓨터합성인지 아닌지 끈질기게 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나니 언제 공연이 끝났는지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는 침묵하였다. 좋다는 소리도 나쁘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다.

공연전의 그 입빠른 사람이 지금은 아예 입무거운 사람으로 변하였는가.

관광객들은 떠들썩댄다.

《대단해. 이쯤한걸 봐야 비행기를 타고 온 보람이 있지 뭐.》

축포가 터져오르는 평양의 밤하늘은 참으로 아름다왔다.

공연을 보러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관람석의 출입구들에서 강줄기처럼 밀려나와 뻐스에 오른다.

대낮처럼 환한 주차장에서는 야경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이채로왔다.

정복상이 뻐스에 오르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쳐다보았다. 과연 그가 어떤 말을 할것인지…

온 세계를 돌아보았다고 자처하는 그의 일가견을 모두가 들어보고싶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적인 걸작품이다. 나는 1996 년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진행된 올림픽개막식에 참가하여 집단체조를 보았는데 <아리랑>은 그것을 훨씬 릉가하는 세계최고의 대걸작품이다. 10 만명이 몇달동안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공연은 오직 사회주의조선에서만 할수 있다.

세계적인 집단체조선수권대회가 열린다면 <아리랑>은 단연 1 등을 하여 10 만개의 금메달을 받을것이다.

한마디로 최고이다.》

그는 안내원처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아가씨, 오늘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어 참으로 감사합니다.》하고 말하였다.

《도덕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까?》

《진정한 인사입니다. 난 만족합니다.》

뻐스에 오르려고 모여섰던 참관단성원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가 개심한 정복상에게 보내는 박수인지, 아니면 《아리랑》에 보내는 박수의 계속인지…



